

여수 소라 · 울촌 수돗물 올해 내 공급

여수 소라면과 울촌면 주민들이 올해 생활용수로 깨끗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여수시는 현재 소라·울촌지역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조기 착수해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런 사업이 완료되면 소라·울촌지역 28개 마을 846세대 수돗물이 공급된다. 이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마을상수도, 소규모 수도시설 등을 이용해 왔다.

시는 '2019년 상수도 보급률

상수도 확충사업 조기착수...올해 69억 투입

소라·울촌 28개 마을 846세대 수돗물 이용

91.7%'를 목표로 지난 2010년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돌입했다.

소라·울촌지역에는 지난해까지 37억 원이 투입됐고, 올해는 국비 32억 원을 포함해 총 69억 원의 예산으로 상수관을 매설 등이 진행될

다.

시는 또 내년까지 화양지구 전체 31개 마을에도 상수도 공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3차 사업으로 계획된 화양지구 상수도 확충사업은 내년까지 총 75억 원이 투입된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삼일동 신덕·소치마을에 상수도 확충공사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21세대 619명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수돗물을 이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마을상수도 등을 이용하는 농어촌 주민들이 불편 없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상수도 확충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수돗물이 빠른 시일 내 공급될 수 있도록 공사기간을 단축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여수시, 농가 소득 10% 증대 '강소농' 육성

여수시가 농가 소득 10% 증대를 목표로 '강소농(強小農)'을 육성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추진된 강소농 육성 지원 사업으로 배출된 강소농은 1월 현재까지 230명에 이른다.

강소농은 경영규모는 작지만 농업경쟁력이 있는 중소규모 농업경영체를 뜻한다. 소규모 농가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경영개선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여수시의 올해 사업은 30명의 신규 강소농 육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강소농으로 선정되면 경영개선을 위한 기본교육부터 영농기술·가공·유통·마케팅·브랜드화 등 특성화교육, 맞춤형 농업경영 컨설팅,

강소농 자율모임체 활동 지원 등을 받게 된다.

신청대상은 여수시에 주소를 둔 중소규모 농업인이다. 연 소득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재매면적 강소농 기준을 초과하는 전업농 등은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내달 23일까지 시 미래농업과(061-659-4482)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3월 중 기본교육과 기술·경영상태 진단, 컨설팅 등을 거쳐 경영개선 실천의지가 있는 30명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경영체가 스스로 경영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강소농 육성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처녀의 고운머리칼 닮은 장흥 참매생이. 지난 9일 장흥군 대덕읍 내 마을에서 제철을 맞은 매생이 손질이 한창이다. 청정해역 특산물인 매생이 생산되는 장흥 매생이는 부드러운 식감과 깊은 향으로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

장흥군, 도로 유지관리 4년 연속 우수기관

장흥군이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2017년 도로 유지관리분야 종합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전남도 22시군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 이번 평가는 매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수상기관을 결정한다.

장흥군은 지난 2014년을 시작으로 4년 연속 도로 유지관리분야에 입상하면서, 군 도로관리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현재 지방도 8개 노선 98km, 군도 18개 노선 124km, 농어촌도로 212개 노선 443km를 장흥군에서 관리하고 있다.

인력과 장비의 부족으로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지만, 매년 상하반기 중점 정비항목을 기초로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 이를 실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도로 유지관리와 관련 4건의 구상권 청구소송이 있었으나 모두 승소해 도로 유지관리 업무에는 문제가 없음을 입증했다.

김성 군수는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은 유지관리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담당자들의 노력에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로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홍필 기자

진도개 테마파크 Jindo Dog Theme Park
천연기념물 제53호

우리나라 토종개, 진도개의 공연과 경주를 보면서 진도개의 용맹함과 주인에 대한 충직함을 느끼며 진도개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진도개 공연 · 경주안내

구분	평일(월~금)	토요일	일요일
장소	평일공연장	주말공연장, 경주장	
공연	10:00, 15:00	13:00	
경주	-	13:20	
진행	진도개사업소 훈련사	진도개 공연단 진도개 경주단	

오시는 길!

진도개 테마파크 위치도

도로명주소 | 전남 진도군 진도읍 성죽길 30
내비주소 | 진도개테마파크
진도개사업소 | 061-540-6306

자차용: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당진-군산-죽림JC-서명암IC 경유 남해안고속도로 부산-진주-통천JC-서명암IC 경유
KTX, SRT: 서울-목포(2시간 30분 소요) 1월 30회 / 목포-진도(1시간 30분 소요) 1월 9회
버스: 서울-진도(5시간 소요) 1월 4회 / 목포-진도(1시간 소요) 1월 22회

진도군, 명품구기자 생산 종묘 보급

2009년부터 교배 육성해 적응시험 마친 2개 우수품종

진도군이 농업소득 5천억원 달성을 위해 다수확 고기능성 품종을 육성하여 종묘를 보급하고 있다.

이런 종묘는 2009년부터 교배 육성하여 지역 적응시험까지 마친 2개의 우수품종으로 국립종자원에 진보호(珍寶1호)로 품종보호 등록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개는 현재 등록 추진중에 있다. '신품종 진도구기자' '진보호'와 '진도2호'는 재래종에 비해 탄저병, 흑응애 저항성이 현저히 높고 분지수가 많으며 결과지가 길어 다수확이 가능할 뿐 아니라 베타인산분이 타 구기자에 비해 높아 고기능성 품종으로도 기대된다.

진도군에서는 고품질 명품구기자를 확대·생산하여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천정 개폐형 시설하우스를 지원하고 새로운(울타리형)재배기술 보급 및 가공·판매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품목별 '구기자연구회' 육성을 위해 연간 4회 이상 농가 교육을 추진하고 방문하는 농업인들의 현장기술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험포장을 운영하고



진도구기자는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는 해양성 기후와 일조시간이 긴 자연적 특성으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구기자에 비해 효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구기자 생산농가의 고령화로 노동력이 줄어들고 생산량 저하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농가부담을 줄이기 위한 미래 대책으로 집약 관리와 다수확 재배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도구기자는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는 해양성 기후와 일조시간이 긴 자연적 특성으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구기자에 비해 효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구기자는 비타민C가 레몬의 2배 함유되어 있으며, 베타인산도 풍부하여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 성인병 예방과 당뇨에도 도움이 된다.

진도=조상용 기자

무안군, 노후주택개보수 지원 사업 추진

무안군은 사회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후주택개보수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원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자가 아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노후불량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고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6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 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과 사회취약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작년 3월 "무안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운영 재원은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다.

군은 이행강제금으로 징수한 1억 8천9백만원에 분예산에 편성 총27기구를 대상으로 구조보강, 수장공사, 난방공사, 위생설비 등의 복지사각지대의 노후불량주택 개보수 사업을 추진한다.

무안=이기성 기자

완도군,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3건 선정

완도군은 9일 국토교통부 신규 지역개발사업으로 다도해일출공원 확대와 가리포해안 노을길 조성, 다목적주차장 조성사업 등 3건이 선정돼 국비 15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도해일출공원 확대 조성사업은 50억원, 다목적 주차장조성사업 60

억원, 가리포해안 노을길 조성사업 50억원 등이다.

이번에 확정된 지역개발계획은 지역의 고유자원을 바탕으로 지역특화 산업을 발굴,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10년 동안 추진된다.

완도=김광수 기자